

광주 중외공원 세계김치문화축제 가보니...

# 관람객 복적... 행사장 곳곳 축제 분위기

디자인비엔날레 시너지 효과  
다양한 콘텐츠로 경쟁력 ↑

# 제18회 세계김치문화축제 개막식 공연이 진행 중인 15일 오후 2시 20분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앞 특설무대. 행사장인 중외공원 내 벤치에서는 외국 여성들의 조출하지만 이색적인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미국에서 온 이들 20대 여성 7명은 김치, 떡과 함께 포도주와 와인잔 등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 재잘거리며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또 중외공원 입구에서는 여고생 5~6명이 외국인 커플 2쌍을 상대로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 중외공원 일대 잔디밭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가족 단위 관람객이 돛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았다. 김장김치를 구입하기 위해 대전에서 왔었다는 정모(45)씨는 "부모님, 아이들까지 모두 축제를 보러왔다"며 "가격도 싸고 다양한 제품들이 많은데다 옆에서 디자인비엔날레도 열려 모두 축제 분위기"라고 말했다. 떡 판매점 업무감도(57)씨는 "지난해보다 관람객들이 2배 정도 늘어난 것 같다"며 손님 맞이에 분주했다.

제18회 세계김치문화축제(10월15일~10월19일)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9월22일~10월23일)에 개최되면서 두 축제 모두 내·외국인 관람객이 급증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이 큰 폭으로



15일 광주 중외공원 일원에서 개막한 제18회 세계김치문화축제에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김치피자를 시식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늘었으며, 15일 세계김치문화축제 개막일에는 미국, 유럽, 중국 등지에서 온 외국인들이 김치축제와 함께 비엔날레전시관 인근에서 열린 실버밴드공연, 김치타악기 등을 즐겼다. 'Say Kimchi~ 천년의 맛, 세계인과 함께!'를 주제로 전시, 공연, 아카데미 등 모두 57종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지는 이번 김치축제 개막식에는 콘스탄틴 부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다토 탐란 빈 이브라힘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등 국내·외 귀빈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로 떠나는 김치 버스 출

정식이 열리고, 김치오감박물관에서는 김치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선보여 경쟁력을 높였다. 그동안 김치축제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은 김치사랑 나눔 메세나, 물론 올해 새롭게 준비한 아트마켓, 사랑의 김치우체국, 자치구 시민 한마당, 김치캐릭터 퍼레이드, 김치문화놀이터 등도 준비됐다. 지난 15일 개막일에는 판매점포, 음식점 등이 모두 관람객들로 꽂혔으며, 몇몇 인기점포 앞에는 길게 줄을 선 관람객들도 눈에 띄었다. 세계김치문화축제 개막과 함께 남

구 입양동 김치타운 광주김치박물관에서는 소금에 대한 100여점의 자료를 전시하는 '천년의 맛-소금' 전시회가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소금의 역사와 특성을 다룬 제1부 '소금의 개관', 천일염의 제조과정을 다룬 제2부 '소금이 오기까지', 식생활에서 이용되는 소금을 다루고 있는 제3부 '소금과 식생활' 코너로 구성했으며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 등 10여종의 세계 각국의 소금도 선보일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F1 코리아 그랑프리

F1 성공개최 도운 사람들

### "F1서 한국인 드라이버 하루빨리 볼 수 있길"

2년 연속 자원봉사자 김소연씨

"힘들기는 하지만 지난해 대회에서 F1 머신들의 엔진 소리를 들으며 느꼈던 감동을 잊지 못해 또다시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김소연(여·27)씨가 이번 대회에서 맡은 임무는 미디어센터에서 유창한 외국어 실력으로 FIA(국제자동차연맹) 미디어 담당자들을 보조하는 것이다. F1 드라이버와 팀별 기자회견, 회의준비, 취재진 업무 보조까지 언론을 통해 독자들이 접하는 선수들의 소식 하나하나가 모두 그의 손을 거쳐간다. 김씨는 "지난해 대회에서는 마셜 요원으로 비를 맞으며 6 포스트 구간에서 경기 상황에 맞춰 플래그를



흔드는 일을 했다"며 "이번 대회는 지난해 대회보다 모든 면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편의시설도 늘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F1을 관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기장을 찾아 현장에서 머신들의 속도를 눈으로 보고, 엔진 소리를 듣는 것이다. 머신이 코너링을 할 때 기여 바쿠는 소리를 가장 좋아한다는 김씨는 "지난해 대회에서 동료로부터 F1 관람 방법을 배우면서 F1을 더 사랑하게 됐다"며 "하루빨리 한국인 드라이버와 한국 팀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

### "전폭적 국가지원 뒤따라야 세계 으뜸대회 가능"

브라질 교포 프로모터 실바나리

'F1 대부'로 불리는 버니 에클레스턴(81)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 회장의 추천으로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프로모터로 참가하고 있는 브라질 교포 여성이었다. 주인공은 패독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실바나리(여·45)씨. 부산 출생인 그는 브라질에서 모터 스포츠 프로모터로 일하면서 F1에서 20년 이상 일해온 베테랑이다. 지난해부터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참가하게 된 것은 브라질 상파울루 F1 대회에서 이벤트·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버니 회장의 추천 때문이다.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산하역할을 했던 버니 회장은 그녀가 한국 출신이라는 소식을 듣고 "코리아 그랑프리의



적임자"라며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최신 기자들로부터 경기장, 운송방법 등 다양한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들어 뿌듯하다는 그는 앞으로 F1이 전국민적인 스포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국가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씨는 "F1은 충분히 매력 있는 스포츠다. 기본적인 여건이 모두 갖춰진 만큼 이제 미디어들이 F1을 알리기 위해 힘써야 한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밑바탕이 된다면 영남 F1대회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대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

### "박진감 넘치는 경기... 전체적으로 완성된 느낌"

방송사 해설위원 가수 김진표씨

한국인들에게 아직은 어색한 F1 대회가 자동차 마니아로 소문난 가수 김진표(34)의 목소리를 통해 전국민들에게 생중계됐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주관방송사인 MBC의 해설위원으로 마이크를 잡은 김진표는 "올 대회는 절반의 준비로 치른 지난해 대회보다 전체적으로 완성된 느낌"이라며 "코리아 그랑프리의 발전 가능성을 봤다"고 말했다. 2011 F1 유럽 그랑프리 이후 F1 전문 해설위원으로 시청자를 만나고 있는 그는 이번 대회에서 자연스러운 진행과 특유의 카리스마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F1 대회전 영남 서킷을 달려본 김씨는 "영남 서킷은 테크니컬한 서킷이다. 드라이버의 능력도 중요하



지만 머신의 세팅이 승부를 좌우한다"며 "올 시즌 15차례 그랑프리 예선에서 레드불 선수들이 풀포지션을 차지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해밀턴이 차지한 것도 큰 의미"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코리아 그랑프리도 손에 꼽을 만한 멋진 경기였지만 올해 대회도 충분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다"며 "내년 코리아 그랑프리가 더 완벽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 /사진=김진표기자 jeans@

### 뉴스 브리핑

####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1%대 인하 추진

민주당 주승용 정책위의장 직 무대행은 16일 "현행 전통시장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1.6~1.8%)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2.0~2.15%)를 '영세가맹점'으로 단일화, 1%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여수박람회 4개국어 자동번역 앱 서비스

여수시는 스마트폰을 통해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궁금한 것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자동번역, 음성인

나 문자로 알려주는 어플 서비스를 14일부터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 광주도시철도공사 신임 사장에 이호준씨

이호준 광주도시철도공사 신임 사장이 17일 취임식을 갖고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장흥 출신인 이 사장은 지난 67년 전라남도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 광주시 남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광주시 환경녹지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문화정책실장, 자치행정국장, 시의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이 사장은 재정·경영 분야의 전문가로,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조직 운영 능력으로 광주지하철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책임자로 인정받았다. 이 사장은 "최고의 기업만이 살아남는 냉정한 무한 경쟁의 현실은 공기업에도 예외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대담하고 창의적인 마인드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과 고객 유치를 강화, 공사의 생산성 향상과 수익 건전화에 이끌어낼 획기적인 혁신 경영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 투자자 명 모심

- ① 법정 지상권이 성립 안되는 물건이고
- ② 낙찰가 2억8000만원중 1/3이상 투자 하실 분
- ③ 투자기간은 8월~1년정도
- ④ 년 수익률이 최하 30%정도
- ⑤ 법적으로 공동 소유 이전등기 합니다

※ 전화상담은 사절 합니다

주 오천경매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투자 연구소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OC & A Investment Institute E-mail : csg5000@hanmail.net

### 부실채권(못 받은 돈) 회수대행전문

####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못 받은 돈

- 선수금 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 금액의 30% 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 가능·연령 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장·김정수)

### 2012학년도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문화로 미래를 리지인 하라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그러나 세상을 밝혀줄 길 문화전문대학원이 함께 합니다.

모집과정	모집인원	지원자격
석사학위 과정	문화경영 및 관광전공 00명 문화예술이론 및 기획전공 00명 계 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응시계열</b> 출신학과(계열,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li> <li>■ <b>지원자격</b>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12년 2월 이내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li> </ul>

구분	원서접수기간	전형일시	최종합격자발표
석사학위 과정	2011. 11. 1 ~ 11. 11	1차 : 2011. 11. 18 2차 : 2011. 11. 25	2011. 12. 14

문의

- 행정실 : 062) 530-4061~4063
- 자세한 내용은 문화전문대학원 홈페이지(culture.chonnam.ac.kr) 참조

### 2011년도 한국방송광고공사 주관 광주·전남지역 광고인과정 수강생 모집

한국방송광고공사 광주지사는 광고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광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고계 종사자 및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역광고인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금번 교육과정의 주제는 "스마트시대의 광고마케팅 전략"입니다. 광고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과정명	인원	교육장소	수강료	교육기간	교육시간	모집대상
광주전남 지역광고인 과정	30명	공사 6층 강당	무료	2011.10.21~11.05	19:00~22:00(금) 10:00~18:00(토)	광고인 대학생 일반인

과정명	강의과목(날짜)	시간	강사(소속)
광주전남 지역광고인 과정 (스마트시대의 광고마케팅 전략)	개강식/마케팅 (10/21)	3	김재성 JTBC마케팅 PD
	마케팅 (10/22)	7	
	크리에이티브 (10/29)	7	현진원 컴투게터CD
	미디어 (11/5)	7	백승록 제일기획 국장

3. 수강신청 접수 및 전형안내

- 접수기간 : 2011.10.7(금)~10.19(수)
- 수강신청 : 인터넷 접수
- 접수방법 : www.kobaco.co.kr > 광고교육원 > 수강신청
- 선발방법 :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11.10.20(목)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문의처

- 한국방송광고공사 광주지사 ☎ (062)652-3600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대한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10725-중-20922호